

한국 데이터요금 41개국 중 2위 “사실무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데이터요금 41개국 중 2위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에 “एं터리 보고서”라며 반박했다.

8일 핀란드 컨설팅업체 ‘리휠’은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요금 41개국 중 2위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리휠에서 매년 분기별로 발간하는 ‘디지털퓨얼모니터(DFM)’ 최신판으로 OECD와 EU에 속한 41개국 이동통신업체의 요금제를 자체 조사 방법론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번 보고서는 이미 작년 12월에 한번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던 보고서와 동일한 방법론에 따라 조사한 결과로 신뢰할만한 보고서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리휠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LTE 데이터 1GB당 가격이

KTOA, 핀란드 컨설팅업체 ‘리휠’ 보고에 “신뢰 불가” “해외 주요국 평균 요금과 비교 우리나라는 저렴한 편”

13.4유로로 가장 비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에도 리휠의 보고서가 자국에 유리하고, 국제 비교에 적절하지 못한 앗터리 보고서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핀란드는 데이터 단가가 매우 싸고 한국은 매우 비싼 것처럼 보이게 한 보고서라는 게 KTOA의 주장이다.

KTOA의 주장에 따르면 리휠의 보고서는 1000분 이상 제공하는 음성통화 요금제를 기준으로 요금을 산출해 통계기준에 결정적 오류가 존재한다.

국내에는 음성통화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보편화돼 있어, 모든 저가 요금제가 산출에 포함된다. 이에 데이터 당 가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다. 반면, 핀란드는 1000분 이상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대부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보고서는 데이터 양이 많고 데이터당 가격이 현격히 낮은 것으로 산출된다).

또 리휠의 보고서는 Median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어, 국가별 요금 비교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KTOA는 주장한다.

Median 방식은 각 국가별 출시된 요금제 전부를 리스트업해서 데이터당 월정액의 ‘중간 값’을 찾는 방식으로, 각 국가에 출시된 요금제 수와 요금제 금액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 알뜰폰의 경우 외국은 포함했으나 한국은 제외했다. 또 우리나라의 인터넷결합할인, 25% 요금할인, 청소년할인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 등 일부 국가는 구글번역기로 조사했으며, 네트워크 품질비교도 제외했다.

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통신사(KT·SKT) 및 정부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요금수준 및 요금제 현황을 비교·분석했다. 비교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스페인, 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11개국이다.


최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KISDI가 발표한 코리아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해외 주요국의 평균 요금(산출평균 값)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요금은 모든 구간에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이 요금이 극단적으로 높은 국가를 제외한 평균 요금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리휠 보고서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편에 속한다. 국가 별 순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비교대상 11개국 중 저렴한 순위로 6~7위에 해당한다.

음성 무제한·데이터 1GB 이상 제공하는 최저요금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1.2GB 2만9700원)는 저렴한 순위로 6위다. 선불요금제만 존재하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조사대상 10개국 중 우리나라는 캐나다(1GB 6만3135원)와 일본(2GB 6만2288원), 미국(1GB 4만7449원), 스페인(1.5GB 3만286원) 다음으로 비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가요금제에서는 순위가 낮으나, 고가요금제로 갈수록 순위가 높아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가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뉴시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악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멜론, 가정의 달 맞아 카카오톡 선물 이벤트

뮤직플랫폼 멜론(Melon)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카카오톡(KakaoTalk)을 통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악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1일까지 카카오톡 이벤트 페이지에서 멜론 이용권과 플레이리스트로 구성된 ‘가정의 달’ 선물세트를 주고 받으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선물할 수 있는 이용권 종류는 무제한 듣기 90일권과 30일권, 300회 듣기, 100회 듣기 등 총 4가지다. 플레이리스트는 평소의 곱마운 마음을 담아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로 구성할 수 있다.

일일이 음악을 선택하기 번거롭다면, #어버이날 #스승의날 #삼년의날 #부부의날 등 가정의 달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선택해 적합한 플레이리스트를 추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선물할 수 있는 음악 선곡을 통한 나만의 센스를 느낄 수 있다.

이벤트 당첨자는 5월29일, 카카오톡의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 뮤직봇 ‘로니’가 개별로 발표한다. 당첨자에게는 스마트스피커 카카오톡 미니를 비롯해 건강식품, 디저트 세트 쿠폰 등을 증정한다. /뉴시스

‘낮은 신용등급 나오면 철회’

신중 ‘등급쇼핑’ 극성

평가계약 체결 뒤 등급 철회 내역 상세 기재 시장규율 유도 금감원, 제도개선 추진

#1. A회사는 여러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를 의뢰했다. 신용등급이 외부에 공시되기 전 사전에 통보를 받은 뒤 그중 가장 낮은신용등급을 준 신협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상위 신용등급만 외부에 공시했다.

#2. B회사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여러 신협사에 평가를 의뢰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등급이 나오자 해당 등급을 부여한 신협사에 등급공시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렇게 상위 신용등급만 외부에 공시하게 됐다.

#3. 이미 신용평가가 진행돼 공시된 신용등급을 보유한 C회사는 새로운 신협사에 평가를 또 의뢰했다. 해당 신협사가 기존 신협사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면 기존 낮은 등급을 준 신협사에 신용등급 철회를 요청했다. 이런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만 남겼다.

여러 신협사에 신용등급을 의뢰했다가 원치않는 등급은 계약을 철회하는 식의 신중 ‘등급쇼핑(Rating Shopping)’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낮은 등급의 경우 신협사에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식이다.

유료 등급이 있음에도 추가로 신용평가를 요청하거나 기존 등급보다 유리한 등급이 나오면 기존 등급을 철회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평가계약을 체결하기 전 좋은 신용등급을 선택하는 종전 등급쇼핑은 현행 법규상 금지”라면서도 “신중 등급쇼핑은 평가계약 체결 뒤 계약해지와 미공시 전환, 신용등급 철회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신중 등급쇼핑에 대해 “신협사가 계약해지 우려로 독립된 정확한 평가의견을 부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때문에 발행금리 산정과정에서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과 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게 해 시장규율을 유도한다. 등급쇼핑 유인을



신임 금감원장 취임사

윤석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13대 금감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차단하는 한편 발행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뒤 계약철회와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평가계약 취소와 철회, 평가등급의 공시, 미공시 전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새로운 유형의 등급쇼핑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 기술상인 ‘2018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대상 분야는 자동차, 항공,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계, 소재,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 에너지 등 모든 기술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요건 심사, 서면평가, 공개검증, 기술이 구현된 현장평가 및 기술개발자의 발표평가 등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 후보자를 결정한다.

포상은 오는 11월 열리는 2018년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11일 까지다. 신청서는 산업부나 국가기술표준원 등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뉴시스

KB국민은행, 군산 지점 협력업체 생산직 금융지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군산지역 한국GM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방문과 함께 생산직 금융지원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최근 군산지역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금융으로 상담과 함께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대해 기존대출금의 만기연장과 분할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